

4 뉴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출간

김나형 기자 nxhyxxng27@knu.ac.kr

우리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을펴냈다.

‘제왕적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정치 논쟁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소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진행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 모델, 공천 방식, 선거법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채진원 교수는 ‘제왕적 대

통령제’를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 해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 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돼, 의회나 다른 기관의 견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헌 논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할 때 반대 진영에서 흔히 쓰는 논리로도 사용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작동할 경우 청와대 조직과 예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집권당의 당수 가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수직적 당·정·청 관계’가 형성된다. 저자는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과 대통령이 공천을 단행하는 하향식

공천 개입을 예로 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삼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 대통령제를 당·정·청이 하나가 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 정 분리 ▲원내 정당화 ▲오픈 프라이머리 ▲대통령제 리더십의 복원 ▲수평적 당·정·청 모델 등을 제시한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제도이식론’을 비판 한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작동 할지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에 이식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두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이 출현했다. 당시 거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을 노려 단순히 의석 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성 정당을 창당해 논란이 됐다. 이는 군소 정당의 국회 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사진=푸른솔 제공)

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과정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다당제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정당정치가 발달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 구조가 형성돼도 합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치 문화가 확립돼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 은 양당제 중심의 대통령제 정부 형

태에서는 국정 불안정과 정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더욱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다수 대표제를 비례 대표로 보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말한다. 저자는 이를 확대해 지역구 대비례 대표 비율을 1대 1(150대 150)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

대통령제는 정치적 안정성, 내각제는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끝으로 “대통령제가 지난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극단적 다당제나 극단적 양당제보다 ‘온건한 양당제’를 유도하는 한국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일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식탐²(探:貪)]

2기 대상 ‘그릭베어’

정다연 기자 ekdusgood@knu.ac.kr

우리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캠퍼스타운)이 주관한 [청년식탐²(探:貪)] 2기에 ‘그릭베어(GREEK BEAR)’팀이 대상을 받았다.

그릭베어는 수제 그릭 요거트와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디저트 카페로 지난 14일 홍릉 바이오·의료 창업센터 1층에 입주했다. 그릭베어는 비건도 먹을 수 있는 디저트로 차별화를 꾀했다. 대표 메뉴는 그릭햄치즈 샌드위치와 비건 요거트 볼이 있다.

그릭베어의 공동 대표 손소희(외식경영학 2016) 씨와 유예림 씨는 “생각지도 못한 상에 감사하고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청년식탐²(探:貪)은 ‘청년들의 외식 창업 성공을 위한 음식을 탐구하고 그 음식을 탐나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거두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식탐²(探:貪) 2기의 가게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5개월 운영 후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5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그릭베어의 공동 대표 손소희 씨와 유예림 씨.

(사진=정다연 기자)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손씨와 유 씨는 “조그마한 카페를 새로 창업하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거래하는 방향까지 생각 중”이라며 “비대면 상태에서도 사업성이 있도록 키워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먼 미래엔 “경력이 생긴다면 창업 관련 클래스를 만들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포부도 전했다.

청년식탐²(探:貪)은 운영 기간 동안 창업지원금,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홍보 등 혜택이 지원된다. 또한, 약 40평 규모의 경희대 홍릉 바이오·의료 창업센터 1층 공간을 지원한다. 손 씨는 “임대료 낼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많아진다”며 “레시피 개발과 마케팅 멘토링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통과정에서는 아쉬운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캠퍼스타운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 허락을 맡아야 하고 기계가 고장 났을 때 함부로 버리거나 살 수 없다”며 “제일 크게 아쉬운 점은 저희만의 색을 인테리어에 녹여내고 싶은데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비쳤다.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창업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하지만, 지역 상생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인테리어의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캠퍼스타운 관계자는 청년식탐²(探:貪) 3기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 많은 청년 외식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기간이나 공간 사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3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리 공간 등을 시연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사업 계획서 등을 확인 후 사업단으로 연락을 주면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3기를 응원했다.

손 씨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계획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플랜B를 생각해 놓는 것이 창업에 도움이 된다”며 창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조언을 남겼다.

세화원 엘리베이터 재설치

정다연 기자 ekdusgood@knu.ac.kr

기숙사 세화원 엘리베이터가 교체된다. 교체공사 예정일은 6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세화원 엘리베이터의 교체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2021년 세화원에 거주했던 A 씨는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혔고 경비 아저씨께서 꺼내주신 적이 있다”며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자주 수리 중이어서 불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종학생회(총학) 측에서도 세화원 안전관리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서울캠 종학생회장은 “총무관리처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화원 엘리베이터는 2005년에 설치돼 약 17년 간 이용됐다. 엘리베이터 교체 이유에 대해 세화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장이 잦고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엘리베이터의 수명은 2~3년 남았지만, 예산 문제가 해결돼 바꾸게 됐다”고 전했다.